

청렴 21

Contents

이달의 청렴사진

이달의 추천 청렴영화

이달의 부패 사건사고

[인터뷰] 포항국토 대표 청렴지킴이 서남숙 주무관

이달의 청렴인물 _ 독립운동가 호버 헐버트

청렴채널 e- 두가지 죽음

청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청렴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

포항국토관리사무소

2016년 5월호

이달의 청림사진

- 겨우내 언동을 뚫고 솟아오른 5월의 보리처럼
항상 청림한 포항국토가 되길.....



이달의 추천 청렴영화- “내부자들”

-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 부패, 비리를 다룬 영화



이달의 부패 사건사고

'온천개발 뇌물수수' 창원시 공무원 3명 구속기소

(창원=노컷뉴스) 이상현 기자 = 온천개발과 관련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청 공무원과 사업자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창원시 북면 마금산 온천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전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시청 관광부서에서 온천 업무를 담당하던 전씨는 2013~2015년 사이 각종 인허가 처리 명목으로 마금산관광온천개발조합장, 온천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명절 떡값, 휴가비 등으로 3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손모(63) 씨 등 사업자 2명도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인터뷰]이달의 포항국토 청렴파수꾼

- “민원인의 일을 내 가정집 일과 같이” 운영지원과 서남숙 주무관

2016년 4월 21일 우리사무소 민원실에서 국민만족도 100%, 불만민원 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영지원과 서남숙 주무관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업무 수행에 있어서 민원인의 일을 내 가정집 일과 같이 생각하며 처리하여 온 서남숙 주무관의 공직 생활 중 힘들었던 경험들, 공직인으로서의 소명의식, 또 우리 사무소가 좀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1등 국토관리사무소로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 많은 민원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설명을 귀담아 듣고 모르는 사안에 대해 질문도 차근차근 하시는데 때론 다짜고짜 큰소리를 치시면서 막무가내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민원인을 대할 때면 휴~~! 표정관리와 감정처리에 힘이 듭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소명의식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도로유지에 대한 필요한 곳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며, 민원처리시 우리사무소과 관련이 없

는 민원인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추가 방문 없이 민원이 해결 되었을 때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신문고 민원은 민원인 편에서는 적극적인 민원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국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민원인 경우에도 소요기일이 상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원인에 대한 담당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인터뷰를 토대로 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보면 가장 넓게 볼 수 있다”는 격언처럼,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 해야할 일이 민원업무가 아닐까라는 소회가 우리 사무소 전 직원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길 기도해 본다.

[쉬어가는 코너] 청렴 만화



알려라 권익톤!

제44화 방탕한 임금을 호통친 정백리
- 정백리 박한주 선생일화





임금에게도 서슴없이 간언을 하였던 우종재(迂拙齋) 박한주 선생은 결국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국정을 비방한다는 죄명으로 곤장(杖) 80대에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고, 연산군10년(1504)에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복위문제로 일어난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직간하는 선생의 정신은 후대에 길이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Korea Human Rights Commission

[이달의 청림인물] 독립운동가 호모 헐버트 신(1863~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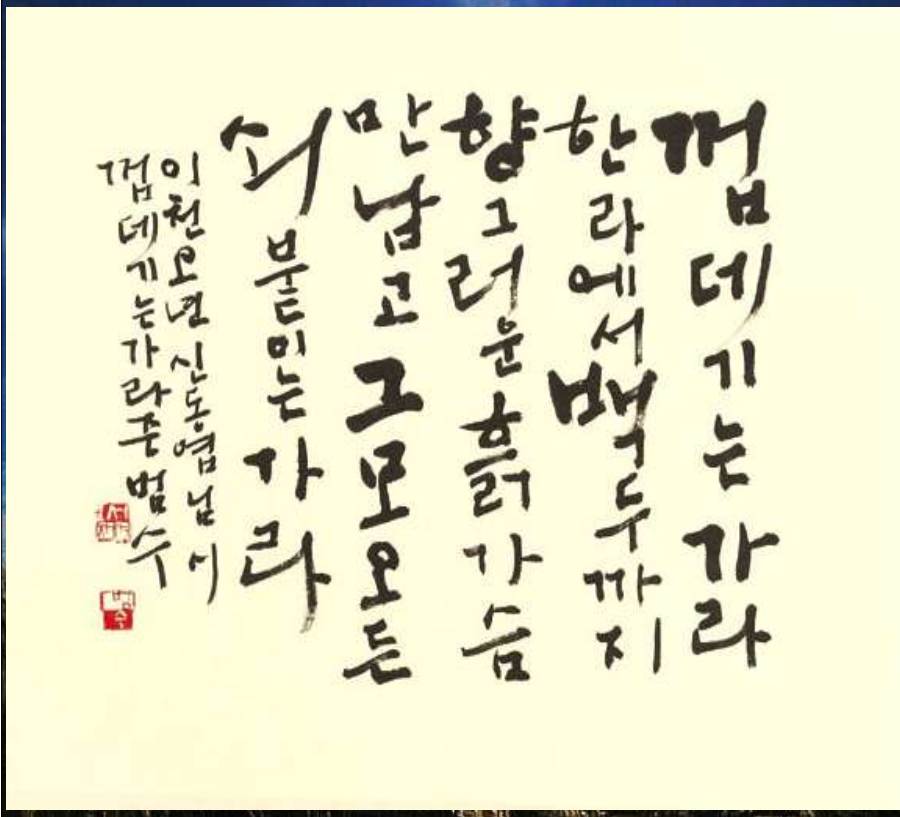


버몬트주(州) 뉴헤이번 출생. 1884년 다트먼트대학을 졸업, 그 해 유니언신학교에 들어갔다가 1886년(조선 고종 23)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D.A.벙커 등과 함께 내한(來韓),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1905년 을사조약 후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다시 내한, 《한국평론 The Korea Review》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이듬해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그는 한국 대표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 《회의시보 Courier de la Conférence》에 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신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190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 정착하면서 한국에 관한 글을 썼고, 1919년 3·1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서재필(徐載弼)이 주관하는 잡지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49년 국민으로 초대를 받고 내한하였으나, 병사하여 양화진(楊花津)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저서에 《한국사 The History of Korea》(2권) 《대동기년(大東紀年)》(5권) 《대한제국 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 등이 있다.

[청림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 신동엽, 「껌데기는 가라」 中

이 달의 고사성어

고사성어랑 일촌 맺기

안분지족

(편안할 안, 나눌 분, 알 지, 만족할 족)

[安分知足]

요약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모습.

선비의 절제할 줄 아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뜻을 가진 게 있는데 쓰기가 조금 그러네요. '적게 먹고 가는 통 싸라.'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평화로운 것은 물론이고요.



[청림채널 e- 두가지 죽음]





다산재민 (e)

조선의 사형(死刑)에는

목을 매는 교형(絞刑)

목을 베는 참형(斬刑)

사지를 밟는 능지처사(陵遲處死)

그리고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평형(烹刑)'이 있었다

조선 철종 때



지인재 (e)

'평형'을 당한 심아우개 씨



한마디로 탐관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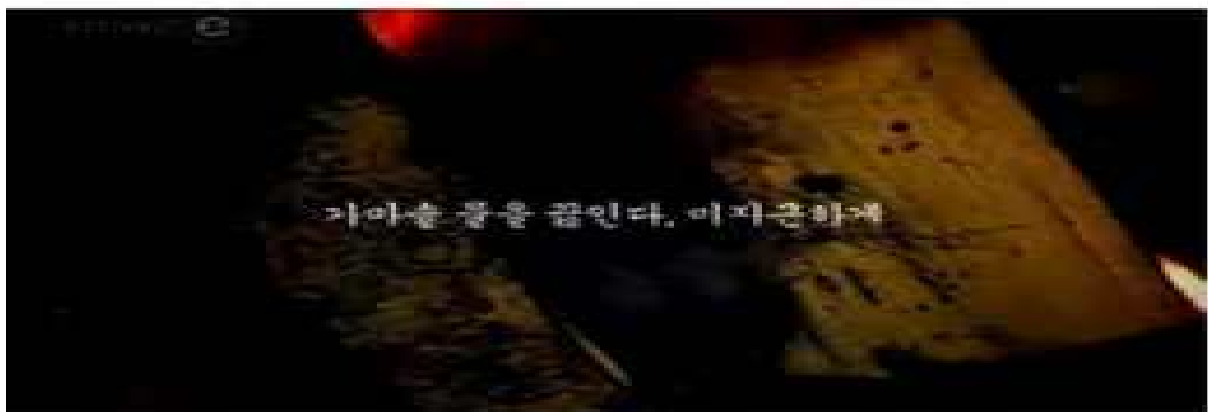
우포도청으로 끌려가 취조를 당하고
세 번의 재판을 거쳐
'평형'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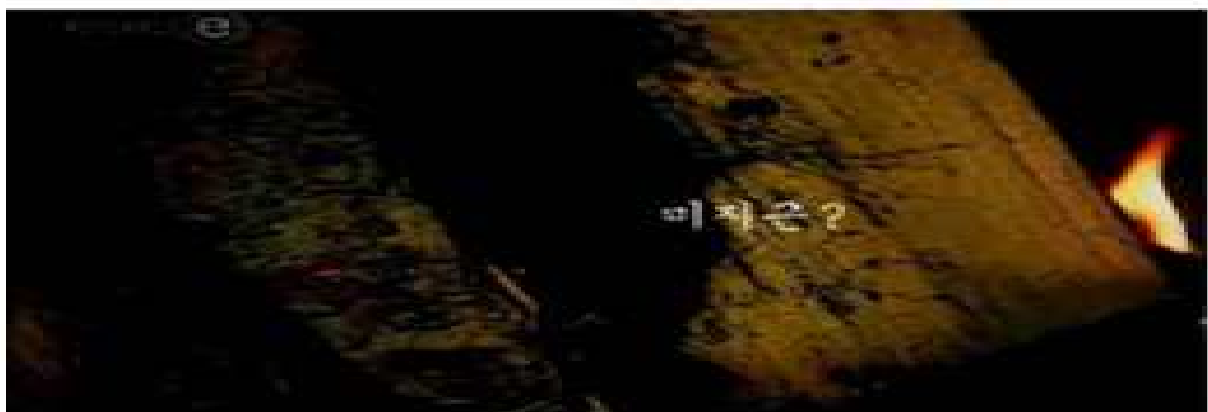


강작 위에 놓인 어더란 가아술

흰옷 입은 탐관오리,
심 아무개 씨가 들어간다



가아술 물을 끓인다. 이 지은하게



이 지은?

몸을 적신 다음 가아술에서 나온다



나온다?







간단하게 하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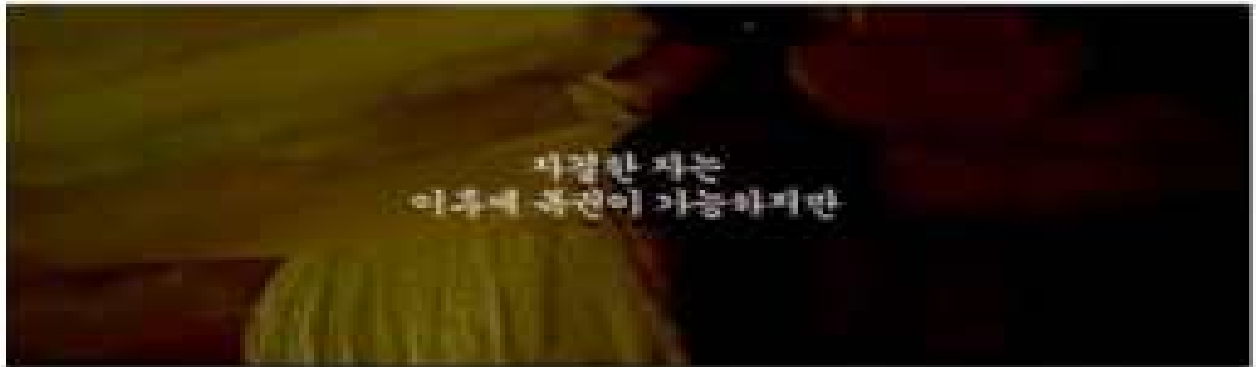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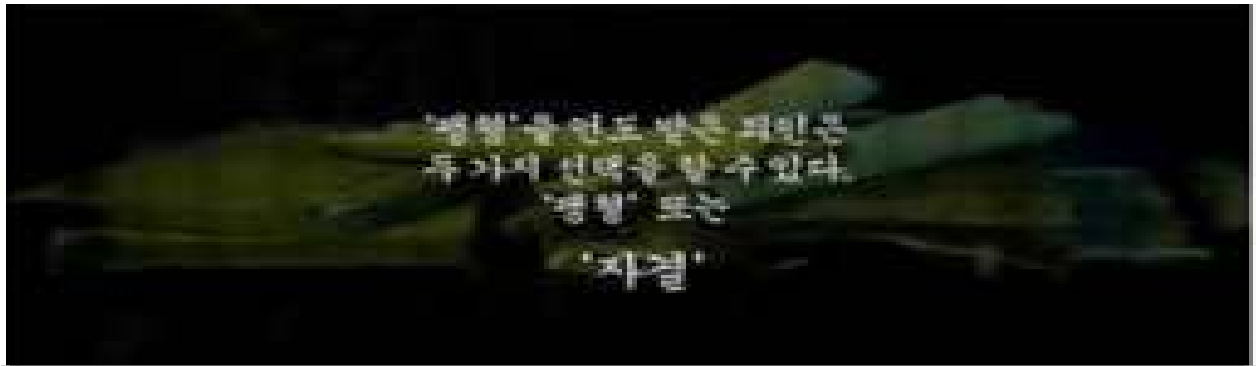


"담담하죠. 속상하고...
술 한 잔 마려 죽마에 갔는데..."



어디? 죽은 사람이 무슨 술이야~







우포도성 앞 '백계교'는
 삼천오리를 공짜 사설하던 곳으로
 조선시대 외교의 변화가
 세종로 네거리에 위치했는데

'백계(旭記)'은
 좋은 길자를 세관다는 뜻이다.

연출 김진혁
 구성 김장원